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8월 25일(금) 총 5매	
담당 부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도시경관팀장 정두용 ☎440-4781 • 담당자 황희정 ☎440-47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인천시 경관계획’ , 국토부 장관상 수상
 - 25일,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계획) 부문서 수상 -
 - 체계적 자원조사, 시민소통 문화경관 발굴 등 참신한 아이디어 돋보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5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 계획부문 최고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경관행정부문 시상은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해왔다.

인천시가 지난 2년여간 시민과 함께 수립한 2040 인천시 경관계획인 ‘경관계획의 선도적 모델;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은 2040년을 목표로 인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과 관리를 위해 수립했다.

이 계획은 체계적인 경관자원 조사와 조사 결과의 시스템화, 시민소통을 통한 문화경관 발굴 등의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여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경관계획 수립 시 충분한 예산과 과업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충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인천시의 이번 수상은 2017년, 2019년, 2021년에 이은 네 번째 경관 행정부문 수상이다. 인천시는 2017년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운영’, 2019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 2021년에는 ‘풍경가도(風景佳島) 168의 가치를 찾다’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은정 인천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네 번에 걸친 수상을 통해 인천시는 경관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 실현을 위한

시민과 행정, 광역과 기초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관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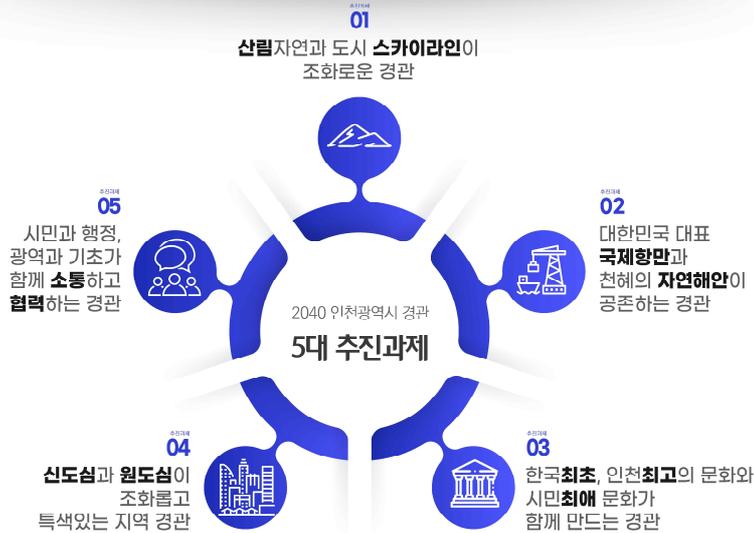
경관미래상 및 추진과제

▶ 2040 인천 경관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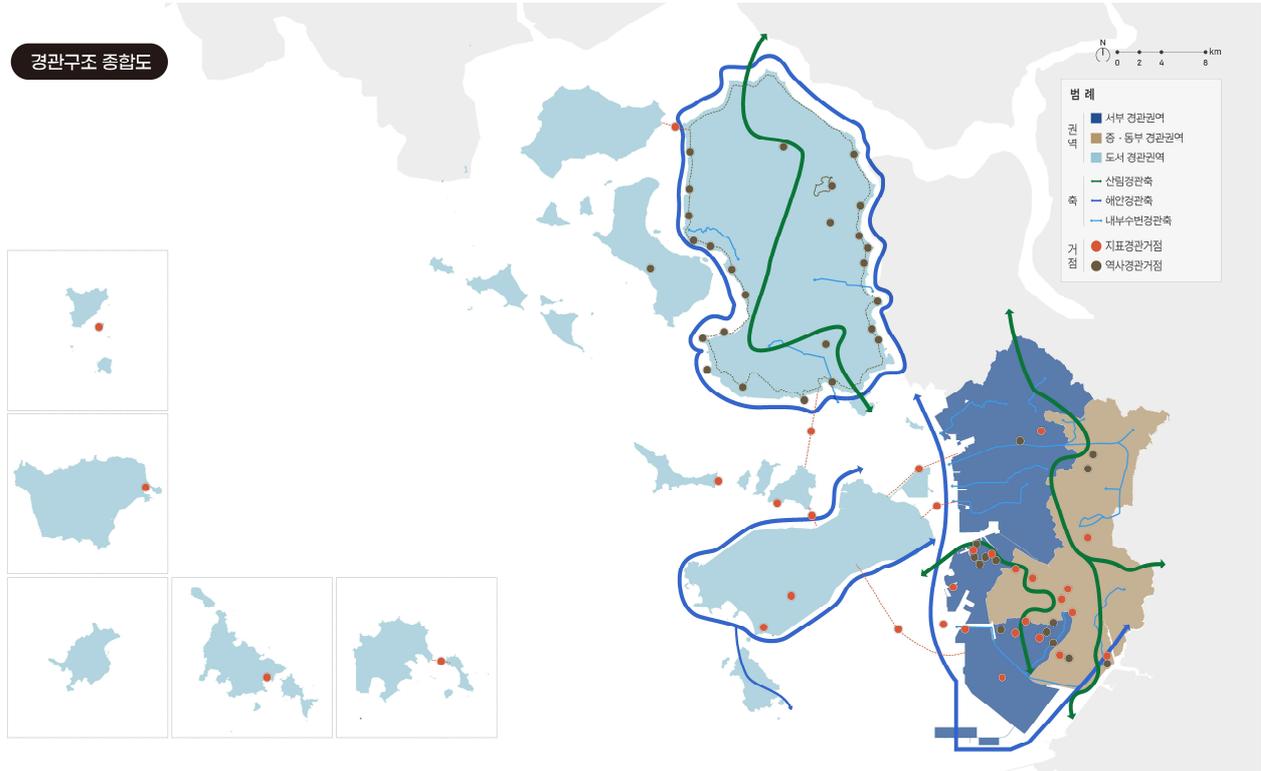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

-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인천 -

▶ 2040 인천 추진과제



경관구조 종합도



시민참여단 운영

인천 문화경관 150선 =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총서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반영 + 시민참여단 인터뷰를 통한 신규 50선 발굴



경관행정포럼 개최

주제별
전문가
특강

+

주제별
인천광역시
계획(안)
공유

+

주제별
군·구·광역시
토론

1차 인천광역시 경관 비전, 목표 및 전략



2차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관리방향



3차 문화경관 추진방향



4차 경관조례



5차 경관사업 (1)



6차 경관사업 (2)

